



時 計 塔

SIGETOP



2005년 7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2권 3호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Y 11354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崔 準 熙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宋 寬 鎬

취 임 사

자랑스러운 "나의 동창회"로 만들어 주세요

최 준 희 (64)



친애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미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원님들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이번 34대 의과대학 재미동창회 회장직을 맡은 최준희입니다. 우선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시계탑 지면을 통해 인사를 올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사료하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1964년에 자랑스러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하여 3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한 직후 1967년에 여러 동문들과 마찬가지로 용지를 품고 도미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0년에 걸친 private practice(in Hematology and Internal Medicine)에 종사하며 이곳 뉴저지로 2004년 3월에 은퇴하였습니다. 많은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인생은 유수와 같다니, 화살과 같다니 하는 표현이 정말 저에게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도리켜보면 의예과에 입학하여 온 세상이 마치 내것이나 된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느껴진때가 불과 얼마 안되는 과거지사같은데, 어언간 41년이 지나서, 자격이 불충분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중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을 때, 사실상 회장직을 accept 한 다음 이삼일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동문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본인을 회장직을 nominate 해주신 정정수 nominating committee chairman과 멤버들께, 저에게 confidence 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정중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년간 동창회를 이끌어주신 이한중 회장님 이하 회장단 및 임원진께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 훌륭한 학술대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일년동안 본인과 함께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일해주실 회장단과 각 committee chairman들께, 기꺼이 직책을 수락해 주시고 firm commitment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30여년전 미주의대동창회가 탄생한 후 수많은 회장님들, 회장단들 그리고 임원들의 험악한 헌신으로 현재 동창회의 견고한 foundation이 된것에 새삼스럽게 고마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과거 수년간 동창회의 실정이 어느정도 걱정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많은 동문들이 우려하는 것을 주시해 왔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년만해지면서 동창회의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enthusiasm이 감소하고, 어느정도 부진해 간다고 주변의 동문들이 저에게 일깨워 주시

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연히 젊은 동창들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선배님들의 타계, 노력의 상태로 인하여 부적절한 건강 등으로 년례 행사에 참가하는 동문의 수가 과거 몇 년동안에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동문의 수는 거의 1,100명에 달하고 있어, 어느 다른 의과대학동창회보다 그 규모와 행사의 질적 우수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은퇴를 했다가,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행사불참의 이유라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2004년 Hershey Park, PA에서 있었던 하계학술대회에서 전임 본국동창회장 이길여 선배님의 말씀이 역력히 기억 납니다. -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자부하면서, pride를 가지고 살게된 뒤에는 서울의대 졸업생이라는 긍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으레히 있는 마지막날 밤의 방콕에서는 그 last scene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씨름을 만들어 손에 손을 잡고, 선후배, 동기, 그리고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음악에 맞추어 회전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다음해에 다시 만날것을 기억하는 그 장면은 아마도 우리 동창회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오는 일년동안에 있을 중요 행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9일(토요일)에는 뉴저지에 있는 패리세디움(대원)에서 Annual Ball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아무런 행사이므로 먼곳에서 사시는 동문들께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무리인줄 알지만, 혹시 이곳 뉴욕, 뉴저지 방면으로 다른 이유로 오실 길이 있으시면 계획을 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그날 밤이 더욱 빛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큰 행사는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Summer Convention with Scientific Sessions가 2006년 6월 25일부터 29일(일요일~목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계획하시어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뉴저지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유명한 호텔 Taj Mahal 입니다. 이 호텔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더 설명이 필요없는 카지노 호텔이고 각 호텔 룸에서의 ocean view는 글자 그대로 장관입니다. Convention 이외에도 많은 activity와 관광을 즐길 수 있어오니 자제분을 동행하여 휴가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컨벤션 전후로 extend 하여 객실수도 있으니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목적이 단지 학술대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동문들께서는 "나는 그것 필요없어" 하

이 임 사

동문 여러분과 영원히 건재할 우리 동창회

이 한 중 (65)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지난 일년간 우리 서울의대 동창회를 음으로 양으로 생각 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들의 동창회는 계속 힘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일년간 임원으로써 수고해 주신, 미시간주를 저와 같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는 동문들, 황규정(65), 조의열(66), 이태석(67), 윤효운(69), 오동환(71),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위원회 위원장직들을 새로 기꺼히 맡아주신 조명호(62), 채무원(65), 권용조(72), 민경탁(65),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며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더 큰 목적은 어쩌면 다른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랫만에 만나는 class reunion, 전 호렷동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선배님, 후배님들 그동안에 변모해 가는 모습, 회노애락의 인생사, 정답 등을 나눌 기회가 있다는 것이 더욱 더 의미있는 참석의 목적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친애하는 동문여러분! 도와주세요, 훌륭하고 멋진 행사가 되도록요.

서울의대동창회를 우리 동창회 혹은 그들의 동창회라고 생각하는 대신 자랑스러운 "나의 동창회"라고 생각해주시고 '내'가 active 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동창회의 장래가 꽤 힘들것이라고 여기시고 부디 참석해 주세요. 조그마한 도움이 합쳐서 큰 효과를 이룬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Registration form과 Information brochure 가 우송되면 부디 잘 고려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어떤 특정 class가 개별적으로 reunion을 계획하신다면 이번 썸머 컴벤손에 합세해서 같

지난 3월 달에 올랜도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Annual Convention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임과 celebration 이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우리 동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Life is good! It is something for us to celebrate in every which way!" 입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증명했다고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국에서 Convention에 와주신 많은 선 후배, 동기 여러분들께, 또한 미주 방방곡곡에서 와 주신 여러 동문들 그리고 동창회비와 후원을 해주시고도 참여 못하신 많은 여러 동문들 한분 한분에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들 한분 한분과 끝까지 건재할 것입니다.

차기회장 최준희(64) 선배님과 임원들께 우리 모두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끝으로 동문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 행사를 하도록 해주신다면 금상첨화격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를 도와주실 회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로는 서인석(73)동문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무는 심인보(83)동문이 면밀주도하고 세밀한 계획아래, 젊은 용기를 발휘하여 좋은 살림꾼이 될 것입니다. 학술위원장은 최영자(66)동문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추종을 불허하는 멋진 session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썸머 컴벤손 체어는 권정덕(64)동문이 많은 경험을 통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grand convention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 committee chairman 명단은 추후에 시계탑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분들!

오는 동창회 행사에, "나의 동창회"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로 취임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번영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Calendar Events 2005~2006

2005 September 3
2005 September 24
2005 November 19

1st BOD Meeting
Golf Outing (GNYC)
Annual Ball
1st Delegate Meeting

2006 March 4
2006 May 14
2006 June 25~29

2nd BOD Meeting
Golf Outing (GNYC)
Summer Convention
2nd Delegate Meeting

제2차 대의원회 보고



일자: 2005년 6월 18일 오후 7:30
 장소: New Seoul Garden, Southfield, Michigan
 사회: 이태석(67) 총무
 참석자: 이한중(65) 최준희(64) 황규정(65) 조의열(66) 이태석(67) 오동환(71) 채무원(65) 조명호(62) 윤효윤(69) 김태환(64) 임춘수(63)
 Proxy: 이명희(66) 김병석(59) 최영자(66) 노용면(55) 이재승(61) 서인석(73) 정정수(62) 오인환(73) 김원정(75) 정인용(71) 구정용(62) 이희경(61) 이상무(62) 송관호(64) 이종현(66) 노재홍(71)
 1. 성원 점검 후, 오후 7시 30분 개회 선언
 2. 2004~2005 제1차 대의원 회 의 초록(03/09/2005) 수정 없이 통과
 3. 이한중 회장 인사
 - Kalamazoo, Michigan에 있는 Gull Lake View Golf and Resort에서 6월 30일과 7월 3일 사이에 골프회동을 겸해서 열기로 했던 대의원회의를 취소하고 6월 18일에 New Seoul Garden, Southfield, Michigan에서 대신 회의를 열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 서울의대 총동창회의 전임 회장 이길녀 선생님의 후임으로 하권익(63)선생님이 신입 회장이 되었다.
 - 6월 30일로 임기를 마치는 현 회장단 임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장래의 동문들 간의 모든 연락 사항들을 www.sna.net 을 통해서 해 줄 것을 제의함
 4. Unfinished Business: 없음
 5. Secretary's Report: 보고사항 없음
 6. Treasurer's Report:
 올랜도 후로리다에서 2005년 3월 9일~13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SNUCMAA Annual Convention에서 총수입은 \$118,460. 그리고 총지출은 \$121,920 여서, \$3,460의 적자를 보았음. (별첨 1 참고)
 7 Committee 보고
 * Finance Committee (채무원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별첨 2 참고)
 * Scholarship Committee (조명호 위원장) - Fund 내의 가용 예산인 \$20,000을 각각 scholarship과 Green Project에 반반씩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음.
 - 안경식 동문의 자제분인 Nicholas Ahn, 김정근 동문의 자제분인 Andrew Kim, 그리고 서울의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홍지복님의 자제분인 Harold Lee, 이상 세 분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제안.
 - 오태희(64) 동문의 자제분인 Eugene Oh께서 서울의대 본교생 2명에게 학비 총액의 50%의 해당되는 장학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모교에서 이에 대한 연락이 없음.
 * Fund Raising Committee (권영조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 서면 보고
 *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Advisory Committee (이만택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By-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 서면 보고 (별첨 4 참고)
 * Nominating Committee (이재승 위원장)
 - 2006~07년도 임기 차기 회장에 조동준(64)동문을 그리고 이사진에 신상균(58), 서영석(61), 정정수(62), 이태석(67), 홍준호(67), 엄규동(69), 김홍서(69), 오동환(71), 석창호(72), 심인보(83) 등을 추천함 (별첨 5 참고)
 * Green Project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8. New Business:
 - Nicholas Ahn, Andrew Kim, Harold Lee에게 Scholarship을 주기로 한 Scholarship Committee(조명호 위원장)의 제안을 본 회의에서 가결 통과.
 - 2006년도 차기 회장에 조동준(64) 그리고 이사에 신상균(58)등 10명을(별첨 5 참고) 추천한 Nominating Committee의 제안을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준.
 - 2005년 회장 최준희(64)동문은 신입 인사에서 내년도 Annual Convention 은 Atlantic City, New Jersey에 있는 Taj Mahal Hotel에서 6월 25일 ~ 29일 2006에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
 9. 폐회: 오후 8시 30분에 기념 촬영 후 폐회. - 이태석 총무 보고 -

2004~2005 동창회비 총 527명 납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 41 이규용 47 장석주 48 장석철 한용현
- 49 고영철 김지익 박근수 이형모 정전걸 50 나수섭 이철남 주 일
- 51 곽 흥 박준홍 오정희 이상하
- 52 김은태 김준준 김호연 이봉기 전병규
- 53 강수상 김형진 장약훈 54 김갑균 이동식 이은희
- 55 김용선 노용면 박병원 서경만 양거영
- 56 김신형 도상탁 박상기 서상철 손종수 신명수 윤신원 이연찬 조동립 주창준
- 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박건호 안효정 유상환 윤 찬 이동성 이민자
- 이하길 임종식 정구영 정진목 정희영 차봉희 한성택 황대연
- 58 김기태 김백년 김수산 김숙희 김시한 김해암 노인규 박용화 박창희 박호현
- 배영섭 신상균 유영호 유지열 이동목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장섭 이종국
- 이종용 이희성 임영신 정순일 최병두 최정희 최창승
- 59 김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용덕 김은섭 나길진 박형돈 서경화
- 신영철 신한수 심충섭 유태준 윤만중 이교락 이영모 이원호 임낙중 임원기
- 59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해숙 한달수 한성업 정병욱
- 60 권기홍 김문겸 김완주 김인환 김재구 김재정 김주택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 송영조 엄도승 엄극용 오신중 우병혁 이광준 이상일 이순환 이애영 이종석
- 이효빈 임종원 임필순 조재동
- 61 강세부 강창욱 계훈택 고의걸 김성준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김화섭 박승균
- 박장생 박준환 서휴열 손기용 손주현 안창현 이재두 이재승 이회백 이희경
- 정의철 정철용 조경하 조은순 최용성 최지원 홍창기 황현상
- 62 강광원 구정용 권익현 김석식 김재흡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박종건 박진수
- 박찬형 박태진 문상규 민경환 송용두 오태요 이경욱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 이상원 이선택 이용길 장병호 장순필 장향순 정정수 정 태 정훈일 조명호
- 조 용 진흥우 최영수 한상호
- 63 강영호 고영희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인원 김진홍 김태용 김택수 김충열
- 노인규 박병학 박세록 박용준 마동일 송용덕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명규
- 윤영섭 윤영욱 이기환 이능석 이범세 이병준 이승현 이종두 이종민 이흥빈
- 임춘수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성민 박세준 박한영 방효준 송관호
-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덕겸 오수환 오태희 유 강 유광현 유창남
- 유효명 윤홍기 이길수 이용만 이유찬 이재풍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주영
- 이진웅 이흥표 임대목 임병훈 전희택 정유석 정인태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 허선행 홍선경
- 65 강길원 구경희 권태해 김길중 김대언 김육현 김택환 문형성 민경탁 박수안
- 백해태 서좌일 서홍석 손광호 신백효 안경식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희
- 이재진 이중희 이한승 이한중 임현재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 채도경 채무원 채 진 최영인 최재근 한원민 한재은 홍수용 황규정
- 66 곽일성 김강길 김용재 김우신 김은한 김의신 김충규 남궁승 박용길 박준석
- 민발식 심정섭 이 룡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이인수 이종현 장한교 정양수
-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조충열 최순채 한일성 황 철 허서룡
- 67 강명식 경우현 김동수 김명선 김상복 김성철 김영곤 김영철 김인귀 김태웅
- 박종민 방정화 문경웅 오세환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육태식 이규찬 이근웅

- 67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준식 이진수 이태석 이태안 임 번 지일성 최무웅
- 최승웅 최재홍 최창식 한서동 한영수
- 68 김경인 김성열 김영남 김주평 김진홍 김 철 김태기 김희주 박정식 서관우
- 서영일 서윤석 서진석 송창호 안세현 이건일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 69 김병오 김영일 김윤섭 김윤태 김재욱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박수용 변영석
- 서 랑 서만길 송기인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육순재 윤효윤 이승공
- 이충호 이치훈 임용규 전덕성 천양곡 최종일 최종진
- 70 김광현 김우영 김일균 김형달 방준재 문성길 여준구 유철희 이명상 이종성
- 인정길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광택 최원일 홍 건
- 71 강유규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제홍 김유식 김창구 김효순 김 훈
-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정자 송창기 오동환 오상현 이원택 이종일
- 장 철 정인용 조병선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 72 김연철 김재석 박명영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이정민 이철재 장병호
- 정진우 조경호 최인섭 황용규
- 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위창호 이계석
- 이영복 임준형
- 74 권철수 김웅진 이진현 이홍재 최태식
- 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억 박인영 박종희 전경배
- 76 김승관 박세화 유영걸 77 강준희 김영호 최호준
- 78 김동수 79 백승원 80 박남훈
- 81 김승현 83 심인보 85 임하진
- 01 김태곤 03 엄선영 이상 526 명

2004-2005장학금 기부하신 분(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김신형(56) 100 최창승(58) 100 강상진(59) 3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 10,000
 박명근(60) 075 박승균(61) 100 황현상(61) 075 민경환(62) 300 박태진(62) 200
 이기범(62) 100 조 용(62) 100 최영수(62) 100 왕규현(63) 100 임춘수(63) 100
 한기현(63) 100 이재풍(64) 100 임병훈(64) 100 이한중(65) 200 박준석(66) 100
 김주평(68) 075 김진홍(68) 050 이건일(68) 500 박수웅(69) 200 이승공(69) 200
 전덕성(69) 100 최종일(69) 100 김우영(70) 100 여준구(70) 100 김유식(71) 075
 김효순(71) 125 배성호(71) 100 서정자(71) 100 장 철(71) 75 정인용(71) 100
 최수강(71) 100 김용진(74) 100 김자억(74) 100 유영걸(76) 15 백승원(79) 300
 Total \$ 15,065

2004-2005 Green Project 기금 기부하신 분(2004년 7월 1일-2005년 6월 30일)
 김호연(52) 50 김교안(59) 100 엄극용(60) 100 이선택(62) 75 임춘수(63) 100
 이한중(65) 100 곽일성(66) 75 김성열(68) 300 김진홍(68) 50 이건일(68) 500
 이승공(69) 200 이원택(71) 50 정인용(71) 100 조경호(72) 75 서인석(73) 100
 김용진(74) 100 백승원(79) 300
 Total \$ 2,375

2004-2005 Donation 하신 분(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최용성(61) 75 한광수(63) 75 민경탁(65) 100 이한중(65) 100 천양곡(69) 200
 정인용(71) 100
 Total \$ 650

뉴욕지부 소식

지난 6월 5일 뉴저지에 위치한 Meadows Golf Club에서 있는 총서울대학교 뉴욕 지구동창회 골프대회에 6명의 의과대학 출신이 참가했는데, 이규용(41), 노용면(55), 방석운(59), 민병덕(59), 주재욱(63), 서인석(73) 동문들 이었다. 이 날 방석운 동문의 부인(신동식)이 홀-인-원(hole-in-one)을 했고, 민병덕 동문의 따님(민영숙)이 여자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 사진은 참가 동문가족들과 영광의 홀인원을 한 방석운 동문 부부, 민병덕 동문의 따님 민영숙.



특집 : 남가주 지부

同己廣場

71년 졸업 동기들

그동안 23명의 도승지(총무)중 8명을 배출한 71년도 동기는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의 노련자위로서 역대 "회장을 할려면 71년도 총무를 잡아라"는 것이 불문 룰이었다.

약간의 들락날락이 있었으나 10명 이상의 동기들이 꾸준히 남가주를 지켜왔고 연륜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大家가 됨은 물론 사회 각층의 지도자급 인사로 부상하고 있다.

몸은 북가주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남가주에 있는 이중인격자 은기철 동문(단, 여자에 관한 누리 엄마 한사람 뿐)은 청춘을 로드 아일랜드에서 허비한 후 卍順의 나이에 대망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그동안 못다한 한풀이로 골프를 36홀씩 돌고 있고, 반면에 클리브랜드 근교에서 일찍부터 Family Practice를 개업해서 제일 먼저 저택을 소유했던 이사구 동문은 잠시 Irvine에서 노인과 개업을 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한국으로 보따리를 쌌다. 아무래도 우리 동문들의 대접이 소홀해서가 아닌가 하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마나님이 존경해 마지 않은 장문석 동문은 소아과를 하는 금봉숙 여사와 밤낮으로 배를 맞추면서 婦唱夫隨로 잘 나가는 산부인과를 저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여편네가 '申士중의 申士'로 사모해 마지 않는 김성환 동문을 꺾고 발랄한 사모남께서 온갖 영제 mode를 따라가며 설치고 다녀도 아주 귀여워 죽겠다는 듯 빙긋이 웃으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펌프질(마취과 전공)에 매진하고 있다. (이만하면 우리 여편네가 申士라 하는지 감이 갑니까?)

또 하나의 '슬만한 남자'(우리 부인은 나 빼놓고는 모든 남자가 우러러 보이는 모양인데, 이거 과연 내 잘못입니까? 그 여자 잘못입니까?) 이창우 동문은 자기 가 노털이 되더니 산 마리노 근처의 지하실과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대저택도 꽤 개치고 밝은 태양, 시원한 바람, 부드러운 모래사장 그리고 또(제일 중요한 이유) 비키니가 펼쳐대는 Redondo Beach로 훌쩍 떠나 버린기라, 부디 노털이 새(新)털로 바뀌기를 바라마지 않음.

항상 반항아 기질이 능후한 박진국 동문은 본인의 직장(한인타운)과 부인의 직장(글렌데일 근처)과도 엉뚱하게 떨어진 뉴포트 비치로 이사를 했는데, 알고보

니 요즈음 한창 세가 나는 한인타운 내 고급 콘도를 하나 더 사서 주중에는 콘도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비취에 있는 자택으로 휴양을 간다하니, 한인사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모양이다.

잡싸게 동기 중에 제일착으로 미국에 그것도 모두가 동경해 온 캘리포니아에 제일 먼저 안착한 김영철 동문은 그동안 V.A. Hospital에서 놀고 먹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말년에 Kaiser 병원에 신참으로 들어가 그 좋아하는 골프 칠 시간도 없다고 아우성인데 지난번 홍성진 동문 장남 결혼식 때 홍동문의 구구절절한 '아들에게'란 축사를 듣고 나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그 원고 나한테 좀 빌려 줄 수 없나?" 였는데, 의과대학 6년을 오직 '族譜'에만 의지해서 졸업한 김동문다운 발상이었다.

우리의 이방인으로 수년간 변방인 Apple Valley에서 守자리를 살던 이희영 대감이 칠전팔기 끝에 지난 5월부로 내직으로 영전되어 곧 사마리아탄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금삼점화로 아주 요염한 수침기생까지 하나 꺾치고 나타나서 역시 사람팔자 시간문제로구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비실비실 하다가 일약 동창회보의 '主筆'로 발탁이 돼서 전방지축으로 글을 써대는 이원택 동문은, 뒤에서 "누가 저런 놈을 편집인으로 시켰어!"라고 수근대는 것도 모르고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모두 '품위없는 글'로 툇짜는데 대한 반발로 만만한 동창회보를 이용해서 흑시나 문단에 등단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역시 서울의대 수준은 왜야 고등학교 때 문예반 출신인 본인의 글을 알아줄 것이라는 자위 속에서)

그러나 저러나 우리 71년도 동기의 백미는 남가주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세명의 장로 홍성진, 박상호, 김일영 동문들이다. 세명이 모두 나성한인장로교회에 직을 두고 있고, 교회내외의 온갖 봉사활동에 주역을 담당하고있으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 동기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그 대형교회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일찌감치 우리 동문회의 총무들을 섭렵한 세 동문들은 십일조를 내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동창회비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문, 동기들의 건강과 평화를 잊지않고 있다. 여담이지만 홍성진 장로가 이 편집자의 끝없는 방탕벽을 보고 선교부의 묘령의 아가씨를 통해 일주일 한번씩 '사랑의 편지'(물론 하나님의)를 3개월이나 보내 왔는데 본인은 그만 그 아가씨의 알뜰한 문체와 달콤한(?) 문장에 매혹되어 짝사랑에 빠진 나머지 "닥터 흥! 나 그아가씨 좀 소개해 줄 수 없어"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애편지도 툇 끊어진 것은 물론 우리 동기들 간에 '도저히 구제불능한 처한'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좌우간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창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동문들 중에 71 Trinity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회의 舊회원이자 半회원인 조세현 동문이 지난 5월 25일 할리우드 장로병원의 백일잔치 참석차 LA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용수산에서 모인 동기 모임에서 1971년도 졸업 35주년 reunion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있었다. 일시는 2006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장소는 일본의 호카이도이고 회비는 일인당 70만원 정도란다. 출발은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하고 기타 질문사항은 71년도 서울의대 졸업생의 마누라를 모인인 '마누회'의 남가주 지부장 미세스 김성환(323-965-1712)에게 하기 바람. 참고로 조세현 동문은 장가 잘 간 덕분에 서울에서 거창한 이름의 무슨무슨 검사소장이라는 직함을 거머쥐고 남들은 눈이 잘 안보여서 차트를 볼 때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고 수술할 때 Intestine을 Peritoneum에다 꺾매다가 간호원들 눈총을 받는 나이에 71년도 동기회 종신회장에다가 한국 e-mail계의 태두로 군림하고 있다. (유감 있으면 인터넷의 napo321@hanmail.net 한번 들어가 보도록).

分水嶺

오는 8월 11일에 있을 선배위안의 밤을 놓고 선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Magic Number를 발견하였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965년 졸업생 대부분이 금년에 65세가 되었으니, 65세 이상이거나(미국 사회보장국에서도 공식 인정함) 65년도 이전에 졸업하신 분 한테만 '선배님' 칭호를 부쳐 드리기로 했는데, 이점을 분수령으로해서 동문 이름 뒤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학년 표시 앞에 '를' 넣고 빼는데 따라서 회비의 삼곡선이 갈라지는 모양이다. 흑시 숫자를 나이로 오해할 경우, 오형원(59)동문한테는 과부들이 줄을 실 것이고, 신명균(83)동문한테는 장의사의 안내문이 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타협안으로 '65년도 이전에 졸업하신 분은 '을' 빼고 65년도 이후에 졸업한 동문들은 '을' 쓰기로 했다.

ANNOUNCEMEN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s seeking applications for the 2005 SNUCMAA Research Grant from its members.

1. The applicant must be in good standing of SNUCMAA of North America. The past participants of the Grant are also eligible.
2. The proposed research project can be in the area of either clinical or basic science.
3. The proposal should focus in a topic of importance and of benefit to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preferably involve collaboration between SNUCMAA of North America and Korea.
4. The project must have scientific merit, and the proposal must include objectives, methodology, the site of the study, the name if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collaborators,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budget.
5. The recipient must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t the following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6. The amount of the Grant is ; 10,000,000 won (about \$10,000)
7. The dead line for the application is Aug. 30, 2005

Please send the original and four copies of the proposal and CVs of investigator(s) to SNUCMAA / 142-04 Bayside Ave., Suite 10U-A, Flushing, NY 11354

상아탑에 총 겨누는 교육부

적반하장의 교육부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라 약칭)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4+4년 의학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이라 약칭함, *주)제도가 어떤 경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었다.

*주: 의학대학원 졸업자에겐 높은 학위(의학석사)를 주고, 의예과출신 2+4 졸업자엔 의학사를 부여하는 제도임.

본래 상아탑 대학은 교육부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교육부를 교육지도 하는 입장인줄만 알고 있는 필자로서, 설마 대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자문기관에서 그러한 제도 결정에 찬성했을까가 만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근 전국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야비하고도 위협적인 의학대학원 제도 강요를 서울의대 교수단은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는 뉴스를 읽고 안심이 되었다.

젊고 소신있는 왕규창 학장은 '침묵은 직무유기'라 전제하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비겁한 당근과 공갈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니(참조: 의학신문 www.bosa.co.kr의 특별기고 2005. 5. 15), 지식인의 양심과 학계의 자존심이 살아있음을 알려 준다

왕 학장은 또한 신설의대를 포함한 교육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변두리 대학에서 교육부에 협조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유혹적인 혜택(당근)으로 큰 덕을 보기 때문이며 양심상 반대했던 일부 의대도 교육부 눈치를 보며 결국 학교 이익 위주로 협조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한국은 부실의대 신설과다로 인해 장차 의사과잉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나,

김 일 훈(57)

이 일은 의사를 사회주의 용병으로 만들려는 현 정부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2001년도에 결정된 교육부의 의학대학원에 대해 필자의견을 피력한바 있다(참조: 의사협회 신문 www.kmatimes.com의 필자칼럼 2002. 2. 14).

그리고 2002년 6월 11일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학장협'이라 약칭함)는 교육부의 방악무인한 태도시정을 촉구하고, 의학대학원 수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예를 들어 동일한 의학교육 4년을 이수한 졸업생에게 동일한 학위수여가 마땅하다는 등의 당연한 5개 조건을 요구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많은 의과대학에서 한국처럼 고교졸업 후 바로 의예과학생이 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며, 이들은 본과(의대)1년 수료 후 학사학위(Bachelor of Medicine, 의학사)를 별도로 수여받고, 의과대학 졸업 때는 모두가 동일한 학위(M.D.)를 받게 된다. 미국에선 다른 분야 학문에서 박사학위(Ph.D)취득자가 의사가 되고자 새삼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드물지 않으며, 이런 학생도 졸업하면 동일한 MD 학위를 받는다. 동일한 의학코스를 이수했기에 당연한 일이다.

학계건의를 무시하고 상아탑의 권위를 짓밟아온 한국교육부는 최근 서울의대 등 순종하지 않는 의과대학에 공갈협박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용기있는 100% 서울의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필자는 오만 불손하다기 보다 너무나 야만적인 교육부 처사에 아연실색할 따름이었다.

대학교수들의 책무는 정부에 무조건 협조하는 일이 아니며, 정부를 비판하고 지도하는데 있고, 교수직은 행정부

의 국책고안자들(장관 등)을 교육시키는 존재인데도, 일개 부처수장이 명령조로 지시한다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서울대에 한의대 설치를 강요하다가 젊은 총장에게 된서리 맞았다. 우수한 우리 민족에 어찌다가 이처럼 흉위병이 조종하는 듯한 무지막위한 행태가 전개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지도자 차이 때문에 중국의료는 세계 최하위인 반면, 싱가포르는 WHO가 인정한 최고 의료국가다. 지금 한국정부는 세계 최하위국의 중의(中醫, 한의와 양의를 동격으로 합친 중국의료)를 모방하고, 의료1원제를 역행하는 국립한 의대를 강행하려든다.

교육부 수장은 지금 부총리가 되어 있다. 교육부 격상은 '교육입국'한다는 후진국 현상이고, 지금 선진국에선 교육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상이다(참조: www.kmatimes.com 의 필자칼럼, 2002. 12. 21).

무식한 지도자의 망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역행적인 "한의학 세계화"가 현재 한국의학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의학대학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군사정권하에서도 볼 수 없던 강권을 무슨 힘을 믿고 휘두르는지 모를 일이다.

5.16 쿠데타 때 군복에 권총 찬 해병대출신 교육장관이 백발 총장들 앞에서 협조를 호소하면서도 위협은 가하지 않았다. 즉 권총을 겨누지는 않았다. 군사정부에서 위세당당한 청와대 경호실장 출신 교육장관이 출현했어도 상아탑을 겨누는 경고문을 발송한 적은 없었다.

이제 민간정부에서 교육부를 격상시켜 그 수장으로 하여금 상아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위협당하는 한국지성의 지도층 '의과대학장 협의회'의 위신이 말이 아니고, 아프리카 야만국에나 있을법한 행위가 교육부에 의해 감행되고 있으니 문명국가의 체면에 관한 문제다. 이러

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성인의 양심으로 대처하는 용기있는 의대교육자들을 필자는 존경해 마지않는다.

의학자자원 드문 8년제 졸업자 교육부가 예측하듯 의학대학원제도(4+4제)가 되면 기초의학자와 의학연구자가 불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고자 한다. 한국에서 군복무 등으로 연령이 찬 일반대학 졸업자가 의학을 지원하는 계기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전문직(개원의)을 찾는데 있음은 하나의 상식이고, 의예과 출신들이 졸업 후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 높다는 사실은 서울의대와 미국통계(미국서 필자가 얻은 정보는 Northwestern 의대 것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 교육부가 의학대학원 제도를 졸속 결정한 이유의 하나로, 이들 4+4년제 출신에게 많은 의학연구원을 기대하겠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인식을 알린다. 아마도 교육부 실무자와 그 우두머리는 4+4제도를 미국의 MD/PhD 코스로 착각했음직도 하다.

미국의 이름난 여러 의과대학원 교수 등 의학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지향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학자 양성프로그램'(MSTP, 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이 있어, 의대보다 2~3년이 긴 의학연구과정까지 수료하면 MD/PhD 두 개 학위를 수여받으며 이들에게 학교 교수직이 보장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 MSTP학생 대부분은 국가(NIH, 국립보건원)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가적 견지에서 의학자 양성을 위한 길은 연구교육직책을 원하는 우수한 의학도를 선발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의대생 졸업생에게 학위차별을 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앞뒤가 맞지 않는 희극이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상아탑을 겨누는 총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21세기 의학은 난치병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대개 세포생리학이나 세포해부학을 전공한 이른바 생명공학자들이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신비를 파헤치며 암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나는 이 기회에 아는 척을 한번 해본다.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목표는 인공수정해서 배양한 배반포나 배아줄기세포를 우선 오랫동안 살아 있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다음은, 저장해둔 배아세포를 난치병 환자의 병든 세포와 대체하던가 이식하는 것이다. 즉, 지난 30여 년에 걸쳐 임상 의사가 환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하듯이 생명공학자는 아예 처음부터 배아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2001년 세기가 바뀌면서 ACT (Advanced Cell Technology) 회사 생명공학 연구팀이 시도하여 연구결과를 Scientific American에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시킨 수정란을 배양하면 3일 안에 팔알란한 배반포(Blastocyst)가 되어 한 주일이 되기 전에 배아줄기세포로 자라난다. 그러나 ACT 연구진이 복제란 몇 개 안되는 배반포는 세포분열을 당장 중지하고 줄기세포를 만들기 전에 다 죽여 버렸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ACT의 실험결과를 부분적 성공이라고 안타깝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2004년 2월 서울대학의 황우석-문신용 연구팀이 복제란 인간 배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하여 결과를 Science지에 발표하자 국제생명공학계가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하면,

실험에 참가한 지원자들이 제공한 난자 242개를 인공수정시킨 수정란에서 20개의 배아줄기 세포군(colony)을 배양하여 저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방법은 특허 신청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2004년 8월에는 영국 뉴캐슬 대학의 생명공학자들이 인간배아 복제 연구 허락을 학교당국으로부터 받아내었고, 10월에는 하버드 연구진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심사위원회에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락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다. 잇달아 보스턴 소아병원 연구진이 주로 소아 혈액암 연구를 위하여 하버드 대학의 연구심사 위원회에 따로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ACT 연구팀의 실험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 규제법을 제정하여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간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시 대통령의 2001년 8월 9일자 시행지침이 골자이다. 하지만 미국에 산재한 수많은 생명공학 실험실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실험실이 현재 캘리포니아에 420개, 매사추세츠에 193개, 노스 캘로니아에 88개이며 11개 주에 걸쳐 모두 1,127개나 된다. 실험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스와프네거

주지사는 올해 들어 주정부 예산에서 \$3 billion(한화 3조원)을 책정하여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른 매사추세츠 라스니 주지사도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조건부로 지원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점지적 색채가 짙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연구를 계속하려면 우선 규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치명적 난치병 연구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윤리적 논쟁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날 전망이 거의 없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배아가 세포분열을 시작하면 실험실 교아로 탄생하는데 실험에 필요한 줄기세포만 빼내고 나머지는 버릴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논쟁의 초점이 되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필요하다면 생명을 만들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실험실의 살인행위를 지지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다. 요행히 논쟁이 해결되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더라도 실험실을 거쳐서 동물실험과 인체실험 단계에 이르러면 아직도 길은 멀고 험난하다. 실험이 예상하는대로 성공한다면 보장 없다.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연구기금을 어떻게 열출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한국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

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제 유아기에 들어선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무책임한 언론이 성급하게 여론에 점화시켜 연구진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내일이면 배아 줄기세포가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듯이 착각한 환자들이 황우석 교수 연구실로 걸어오는 전화벨 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줄기세포가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국민이 열을 올리 고 있지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석좌교수제도를 도입하여 황우석 수의학 교수를 2004년 9월 1일부로 수의과 대학의 석좌교수로 임명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긴 해도 석좌를 물려준 교수의 이름이 없는 석좌교수가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또한 황우석 교수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황 교수의 수 의과 대학 학장 추대 문제가 여론화되자 황 교수가 노벨상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글을 인터넷에 쓴 사람도 있다. 노벨상이 어디 후원회의 후원으로 받는 상인가? 더구나 상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다니 할 말이 없다. 그야말로 국제적 웃음거리이다.

한국 국민은 현명하다. 너도 나도 모두 현명하다고 믿는다. 그런 현명한 국민이 뿌리없는 줄기세포가 진실로 한국을 먹여 살리기를 바라다면 현실을 똑바로 내다보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이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황우석 교수와 연구진도 국제적 과학자의 품위를 지키며 계속 연구에 정진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오 태 희(64)

알 수 없다 함이 정답

노 인 규(58)

낮에 하늘을 쳐다본다. 눈부신 태양과 각양각색의 구름이 보인다. 개인날의 하늘은 푸르게 보이고 그 속에 많은 천체들이 있을 것이나 낮에는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일뿐이다. 밤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보인다. 가느다란 빛을 발하는 별들이 보인다. 크고 작은 별들이 보인다. 작은 별들 너머에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 또 그 너머의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그 너머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마저 지치게 된다. 그 무한대의 우주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다 함이 정답일 것이다.

먼 산을 바라본다. 푸른 나무 사이로 바위가 보인다. 가까이에 가 본다. 바위 주변에 자갈들이 널려져 있고 흙도 있다. 가루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일 현미경적 입자가 될 것이다. 그 작은 입자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 분자나 원자에 까지도 이를 것이다. 원자탄의 위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동력을 주기도 하는 원자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자 말이다. 분자나 원자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무한소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다 함이 정답일 것이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하여 생겨난 수정란은 인간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라서 태아가 되고, 그리고 아기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다. 갓난 아기의 귀여운 모습에는 누구나 다 웃는 얼굴로 들여다 본다. 머리털, 얼굴과 여러 감각기관, 가슴, 배, 성기, 팔다리, 손발,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등을 살펴보고, 또한 몸 속에 있을 각종 장기,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과 각기 다르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생리기능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이와같은 각종 장기와 기관, 수많은 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기능 등의 기본 요소들이 그 발육 시작 시기의 아주 작은 수정란 속에 모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명체 근원의 본체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다 함이 정답일 것이다.

근래 한 두 살 나이를 더해감에서, 또 아이들이 다 어른되어간 처지고 홀로 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한 삶을 조금은 더 평안하고, 즐겁고 무탈하게 살아가야되지 않겠나를 자주 마음에 두어보곤 한다. 아이들을 키워가며 공부시키라, 또 한살림 장만하여 가느라 잡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분주히 살 때, 참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에는 마음 쏠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의 이 삶이 그리 궁색하지않고 시간도 - 삶을 아끼지 않아도 - 넉넉하다 보니 삶의 이모저모를 생각하여 가며, 나날을 보낼수 있는 처지가 무척 감사하게 느껴진다.

일전에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까지 지낸 한 친구의 친구들(국민학교 때부터의 친구였다 하니 무척히도 부러운 옛친구들)이, 그 친구가 한국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골퍼들과 골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몇일을 같이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모임으로써 친구가 무엇이고, 사람됨(仁) 또 의리가 무엇인가를 새삼 느껴 알수있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글에 내 고장(미시건) 친구의 부러울 정도의 옛친구들이 짧은 미국 방문동안 실히 보여준 '의리', 그 의리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남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표현해 보려한다.

민중서림 국어사전에 '의리'를 다음과 주역하고 있다.

의리: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바른 도리, 선의를 지켜야할 교제상의 도리.

또 육편에 의(義): 옳을 의, 의리의 뜻의- 人所可行道理 의리의 의, 리(理): 도리 리, 바를 리, 라 풀이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해야할 바른 도리가 의리의 정의입이 틀림없다. 우리가 배웠다 자부하는 문화인이고 같이함을 추구하는 사회인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나, 너 또 그가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상이고 보면 서로 살며 윤택하게 행하여야 할 지체없고 가림 없는 '바른 도리'만은 활락이는 한 삶의 일순에 한두번 좁은 마음두어 보며 살아가야겠지 않겠나 전제해 본다.

오늘날같이 사리에 혈안이 되어 나만있고 내 믿는것만이 오직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였던 처지마저 적이 되어가는 살벌한 세상에 '의리'의 진의를 맛보고 음미해 볼 수 있어 무척이나 다행하다 생각한다.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바른 도리(배운 사람이든 일자무식인이든간에) 네 발로 움직이는 짐승이 아닌 우리로서 하루에 잡자는 시간을 빼고 조금은 마음에 새겨가며 생각하고 저울질해 봐야 할일이 아닐까!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 한마지기 사면 배아프다"란 몹씨도 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식욕, 성욕, 의욕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오래 오래 즐겁게 살다가 그 욕구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죽음은 즐거운 죽음이 될 것이다. 즐거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본다. 죽음을 바라보며 마음 속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즐겁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다. 이제 몸이 죽은 순간이다. 먼저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심장의 박동이 멎으며 숨을 거두게 된다. 이와같은 즐거운 죽음을 보는 사람들도 즐거운 것이다 즐거운 죽음 후의 세상이 더 필요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다 함이 정답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죽음의 종착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생 여정의 도중에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질병에 의한 죽음, 사고에 의한 죽음, 천재지변에 의한 죽음 등과 같은 애석한 죽음이나 나태에 의한 죽음, 전쟁에 의한 죽음, 사회악에 의한 죽음, 자살에 의한 죽음 등과 같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하여 원하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같은 애석한 죽음이나 비참한 죽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위로의 정을 자아내게 하며, 이 세상에서 못 다한 여명을 저 세상에서 다할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한 죽음이나 비참한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다 함이 정답일 것이다.

뒤들의 거북이

글 신영철(59) 그림 김진호(61)

동중정 정중동

가는듯 하더니 그저 그자리 멈춘듯 하더니 말 없이 또 한 발

장수의 비결인가

등에는 살아서는 못 떼어 버릴 두꺼운 업

한 발 내디디고 또 깊은 사념 축 짚리면 북 울쪼리고 안으로 삭인다

지선 지순



겨하시던 시를 다시 복사한다. 시인의 이름은 이내 기억에 아롱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빚지며 산다는것 그 빚을 갚으며 산다는것 그 누가 나에게 해준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며 살자! 만나서 사랑하다 이 땅 떠날때 후회함이 없는 내가 되도록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하고 손을 잡는다는것 잡은 손의 따스함을 잊지않고 산다는것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다

나는 이 시를 다시 물어보며 사람의 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해야할 도리를 새삼 깊이 음미해 본다.

너 또 그가 없고 나만 있다면 누구에게 '빚'지며 빚갚고 살 필요가 없을 테고, 사랑할 사람도 없이 외롭이가 될테지! 그것엔 제 손은 있어도 손을 내어 잡아줄 너, 또 그가 없을테고 설마 제 손의 따스함은 느낄 수 있을지 언정 그의 내민 손의 '따스함'을 어이 느낄소나?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없다..." 하니 나도 있고 너, 또 그도 있는 서로의 우리가 있기에 人所可行道理가 필요한게 아닌가. 그래서 윤택하게 自行하려고 추구하는것에 그 삶의 멋이 있지 않겠나?

義理가 한 삶을 사는 동안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가며, 손에 손을 잡고 잡은 손의 따스함을 느껴가며 또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윤택하게 행해야할 도리가 그것이라면 이 자그마한 한 삶을 사는 동안 이 의리에 대해 살펴가며 가꾸어야할 일들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강설하고 싶다.

義理: 人所可行道理
우리 모두 의리찬 멋진 삶을 가꾸어가며 살아보자!! 사리의 티 하나 묻지 않은 가락하고 멋진 열 두살난 리를 리그들 같이 의리롭게.

義 理



정적인 속어가 오래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의리를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제 아닌 너와 그가 더욱이나 나의 사촌이 잘되는 것에 시샘과 투기를 느낀다면 人所可行道理를 행할수 있을까?

믿음(신앙이든 사상이든)이 같지 않으면 아예 적이 되어가는 그로해서 살벌한 살상마저 파다 얽는 나만 있는 세상에 사람으로 올바르게 행해야할 바른 도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 너 그가 서로가(우리가) 못되는 금세에 바른 도리는 또 무엇일까? 서로가 못되는 금세의 나의 바른 도리가 너 또 그의 바른 도리와 근사하기나 할까? 아니면 나의 바른 도리가 너 또 그의 바른 도리보다 더 나아 내 것만을 강요한다면 금세의 사리에 찬(collective 든 아니든) 여처구니 없는 참사들만이 난무하게 틀림없다 의심치 않는다.

요사이 리를 리그 월드 시리즈를 TV 방영으로 볼 기회가(시간의 여유가 있다 보니) 있었다.

한 공격팀의 타자가 홈런을 날렸을 때 그 홈런을 날리게 한 수비팀 투수

가 공격팀의 홈런을 날린 선수가 홈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맞아 그에게 high five로 축하하는 장면을 보았다. 온 관중이 일어나 열광적으로 찬사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아나운서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환호와 찬사에 찬사를 보내는 장면을 TV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참으로 가락하고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었다.

열 두살밖에 안되는 아이들인데 ... 이것이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해야할 바른 도리 그대포가 아닐까!! 이 열 두살밖에 안되는 little leaguer 들까지도 '의리'롭게 行할수 있을을 보

았을때 내 마음이 자책감과 부끄러움에 몹씨도 설레임을 어찌할 수 없었다. 과연 우리 나이먹은, 더욱이나 배웠다 자부하는 처지에 실히 더욱이나 같이함을 추구하는 어른된 처지에 이같이 行할수 있을까 자문해 보며... 서로가 못되어 가는 나, 너, 그만이 독특한 이 살벌한 세상에 어찌 나, 너, 그가 믿는 것만 오직 믿음이 된다. 역설할 수 있던 말인가? 오직 내가 있어 너와 그가 존재한다면 그럴만도 하지만 제 혼자만으로 사회인이 되고 문화인이 과히 될 수 있을까. 또 나만의 사회라면 서로있고 같이함을 추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살아야할 도리, 사람으로써 윤택하게 행해야할 바른 도리가 무엇에 필요할까. 그저 빈말의 겉치장으로나...!?

내가 너, 그가 없이 돈존하는데 고그름의 다름이 있을리 없고, 증애탐진치의 그림자마저 열선할 수 없을테니까 말이다.

紙上法醫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

노 용 면(55)

이름난 출판회사의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던 맥크리리 여사(Ms. McCilly)가 수년 전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그녀의 고급 아파트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그 심장 전문가가 재판 전에 있는 심리에서 증언하기를, 맥크리리 여사가 칼에 찔린 후 15분 동안 동통을 겪었다고 했다. 원고측 변호사가 그러려 1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했다...

고여 있었다. 양쪽 능막강 속에는 600cc 씩의 혈액이 고여 있었고, 복막강 속에는 50cc 내지 100cc 의 혈액이 고여 있었다...

체내에 출혈한 전체 혈액의 양은 약 1,300cc 이다. 심장이 먼저 찢렸다면, 이만큼한 혈액을 배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상 심장은 전체 혈액의 약 3분의 1이 없어질 때까지 혈액을 배출할 수 있다. 그후에는 혈액을 배출 못하게 되어 피해자가 출혈성 허탈(hypovolemic shock)을 일으키게 되며...

심장 전문가가 주장하기를,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에 15분 동안 충분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어 의식이 보존되었다고 했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녀의 심장이 손상을 받지않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틀린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심장 전문가는 또한 주장하기를, 출혈때문에 생긴 저혈압이 심장마비

(cardiac arrest)의 원인이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녀의 심장에 있는 두개의 큰 자창이 심장마비의 원인이었다고 본다. 정상 심장이 한번 박동하는데 60-70cc 의 혈액을 배출한다...

이런히 이유로, 나는 그녀의 심장이 최후로 찢렸고, 심장이 두 번 찢린 후 그녀가 즉사했는데, 그때가 내출혈을 하기 시작할지 약 15초 후였으며, 그때까지만 그녀에게 의식이 있었겠다고 하는 결론을 맺었다.

변호사가 내 보고서를 원했다. 그리고 그가 그 보고서를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제 이 케이스는 몇 분이나 아니면 몇 초냐 하는 요점에 도달했다.

변호사가 재판 날자를 통지해 왔다. 내가 재판에서 증언할 준비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이 내가 재판에서 보여 줄 상처의 도표도 작성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하는 날, 그 심장전문가가 원고측 변호사에게 갑자기 통고하기를, 자기는 이 사건에 이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Reference: Yong-Myun Rho : Murder or Suicide, Carlton Press Corp. 1996.

정년(停年)

김 철 규(64)

지미카터는 "나이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욕심없는 노년은 아름답다고 하였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할 일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이제부터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의 의식으로 간주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 대학교수로 근무하던 필자의 동창들이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였고 금년에는 모두가 30-40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때가 온것 같다.

정년제도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 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진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공무원, 교원, 군인, 사기업등 직업과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평균 정년은 56-58세 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사오정, 오륙도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정년제도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 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진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공무원, 교원, 군인, 사기업등 직업과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평균 정년은 56-58세 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사오정, 오륙도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업도 있을 뿐 아니라 퇴직자를 타부서에 재임용하는 등의 시책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년을 연장시키고, 늘어만가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의 정년은 얼마나 될까? 그나마 대학에 몸담았던 교수들은 65세 정년을 채우고 있고 극소수는 명예교수로 남아 연구를 계속하는 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백수 상태로 있는것이 보통이다. 과거 10년전만 해도 정년을 끝낸 교수가 새로 개업을 하면 유명한 교수가 개업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환자가 몰렸으나 의료보험시대를 지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많은 자본을 들여야 하고 또한 젊은 의사들과 경쟁을 하여야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정년후에 새로 개업을 하는 교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정년을 맞는 사람들은 과연 정년퇴직을 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게된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잘해야 20여년, "인생의 가장 참다운 행복은 황혼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정말로 황혼기란 참다운 의미에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보면, 은퇴의 관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망만이 기다리는 문턱이 아니라고 본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황혼빛이 펼쳐져 있으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생의 참행복은 은퇴 이후의 시기에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철학자가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지는 해가 더욱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대한 기대로 살고있고 그래서 힘든 일이나 고통도 인내해 가며 여지껏 살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더 낫아지겠지, 미래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지, 그리하여 이러한 목표가 성

취되는 시기가 바로 은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충실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하여 과연 지금부터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를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노후를 다 끝난 덩으로 생각하지 말고 존경 받는 노후생활을 설계하여야 한다. 실제로 노인의 생활은 화려할 수는 없다. 은퇴에서 오는 경제적 상실뿐만 아니라 야망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의 원숙함은 여유와 초월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늙어감을 안타까워 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늙음을 받아드리고 생을 관조하면 남은 삶이 여유로울 수 있다. 나이 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할 것이며 늙지도 않고 끝없이 오래 살고 있다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풀어 줄 것이다.

정년퇴임하는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아름답게 늙기 위한 십계명을 여기에 적어본다.

- 1) 건강을 유지하자. 2) 용모를 단아하게 가꾸자. 3)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자. 4)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 말자. 5)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자. 6) 늘 배우고 다듬어 나후되지 말자. 7) 욕심과 아집을 버리자. 8) 서두르지말고 행동을 신중히 하자. 9)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자. 10) 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매사에 감사하자.

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문제가 앞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0년정도 낮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는 인력난으로 외국인 불법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인력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령인구에 대한 노후생활 문제와, 할 일 없이 소일하는 노인들의 정신적 조로현상, 심리적 소외감, 허탈감 및 노인성 질환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는 점점 심각해 질 것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년의 연장, 퇴직자의 재취업의 확대,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시계탑에 온 편지

시계탑 편집하시는 분들께, 수고합니다. 저는 70년 졸업생 여준구입니다. 이번 호에 제 이름으로 '진달래'라는 시가 실렸는데 저는 이것을 보낸적도 쓴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이름으로 두 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닐때 시도 쓰고 그리고 시를 무척 좋아했지만 졸업한 후론 한 편도 안썼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밝혀주시고 시계탑에 제 글이 아니란걸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 여준구

편집자주: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여준구 동문의 이름으로 (봉투의 발신지도 여동문의 주소) 한 편의 시가 배달되었다. 여준구 동문의 양해하에 소개한다.

생

여 준 구(70)

흙을 터치어 솟는 새싹의 영이 물차올라 햇살 가득히 고운데 초록빛 정순하여 상쾌한 봄발의 젊은 꿈이 흰구름같이 청춘은 흘러가는 추억이려니

조막손 일새 펼쳐어 구하는 손길아 하늘향한 이생의 갈망인데 이내 맺은 꽃망울이 아름다워 언제인가 찾아올 비운을 잇는구나

다투어 피어오르는 꽃들이 이상처럼 지나온 삶이 아슬땀은 광영인데 색채들이 이루어진 무지개 삼이 살포시 숨겨진 암살들의 모습처럼 이 모든 허상이 세잇의 영원이려니

속세에 툴은 길길 뿌리 두루뎌어 끌어모은 욕된 생의 진기가 마디 마디마다 극락의 꿈을 키우는데 어이타 가는 세월이 무심타 서러울까

이 글은 사람이 사는 동안 몇 번쯤 찾아온다는 그 기회의 하나를 맞아 20여년 동안 겪은 나의 경험을 정리해본 것이다. 특정 전문분야의 이야기가 시계탑에 게재되는 글로서 적절한가 하는 회의로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찾아온 기회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일이 풀려나간 과정은 그 전문성을 떠나서 하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이 나라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 동창들과 그 경위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나 그보다도 도전과 좌절을 동반하지 않는 행운은 순진한 희망일 뿐 현실은 아닌 것이 이 기회에 일러주고 싶다.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겠지만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성질의 도전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누구의 삶에서나 깊이 생각하며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런 기록을 되풀이하며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졌다는데 내가 심혈을 쏟은 보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바라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 전문용어가 섞여있기는 하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고 직설적 이어서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 바란다.

**후버댐의 탄생 유래를
생각하게 하는 순간**

내가 40이 넘어서 임상의학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여태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의사라는 본래의 직업에 충실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아과 수련을 끝내고 직장을 얻고 보니 조금 성질은 달라졌지만 여태껏 하든 유전학 분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본래의 생애를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게 내가 내심 바라고 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행한 일은 두 해 동안의 임상수련이 나에게 여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문제들에 눈을 뜨도록 한 것이다. 새 직장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뜻밖의 숙제가 생기더니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긴장하게 한다.

선천성 대사질환의 하나인 homocystinuria는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이라는 물질이 몸에 축적이 되는 병이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환자가 죽은 후에는 혈액은 물론 어느 조직에서도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해를 두고 알려져 온 퍼즐이다. 초임자인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물론이다. 이들 환자는 혈관에 손상이 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뇌나 심장의 손상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뇌 조직을 얻어와서 호모시스테인과 섞어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 분석을 해보니 호모시스테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물질의 안정성으로 보아 분해되어버리기 보다는 어디에 결합되었기에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다음 단계는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는 일에 착수했다. 우여곡절 끝에 화학처리로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검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추론이 입증된 것이다. 불과 두 달만에 이런 행운의 순간을 맞은 감회는 짙다.

다음 단계로 환자의 혈청을 써서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때까지 호모시스테인의 측정법은 혈청의 단백질을 제거한 다음 얻은 상등액을 분석기로 정량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상등액 대신 제거해버리는 단백질을 화학처리해서 분석을 하니 놀랍게도 살아 있을 때의 10배가 되는 분량의 호모시스테인이 단백질에서 분리가 되었다. 이 예기치

못한 결과는 여태껏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그것은 몸 안의 대부분의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며 그 때까지 측정하고 있던 방법은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비결합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상인의 혈액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결합 호모시스테인이 절대적일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 예측한대로 새 방법으로 정상인의 혈청에서 어렵지 않게 호모시스테인이 측정되었다. 이 사실은 호모

관상동맥이 검증된 경우는 이 논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희비가 엇갈렸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통계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내가 기대한 결과는 아니었다. 나의 눈점은 호모시스테인이 진정한 독자적인 동맥경화의 위험요소(risk factor)라면 관상동맥증 환자는 2 종류 즉 정상보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호모시스테인증(homocysteinemia)을 가진 부류와 다른 원인으로 관상동맥증이 와서

테인증을 관찰함으로써 B12도 엽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임신부에서는 비타민이 아무리 낮아도 정상 호모시스테인을 유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임신중의 이 특성이 여태껏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흥미 있는 일이다. 여하튼 비타민과 호모시스테인의 관계는 1987년 Metabolism에 출판이 되었다. 유전과는 관계없이 비타민 혈중농도의 저하로 오는 비유전성 호모시스테인증의 존재를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힘으로서 호모시스테인증의 원인으로 뿐만 아니라 호모시스테인증의 치료방법으로 비타민의 역할은 그 후 호모시스테인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다.

제일 흔한 열성 유전변이의 발견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타민 저하가 해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타민 분석실에서 얻은 혈청가운데는 비타민의 결핍 정도로 보면 앞서 관찰한 세환자와 차이가 없는데도 호모시스테인은 정상의 3-4배에서 그치는 예를 계속 보게되면서 비타민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엇이 세환자에 있는 것을 의심했다. 이것이 유전적 결합일 것이라는 애초의 생각으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그렇다면 왜 찾지 못하는가? 이 해답으로 추정된 것은 세환자의 효소 결핍 정도가 homocystinuria의 경우와는 달리 극히 경미한 탓이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첫째는 분석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요 둘째는 정상효소와 결핍효소간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전병 환자의 부모는 정상인의 50%의 효소 역가를 가지고있어 효소분석 결과로 이것을 정상과 구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런 1:2의 관계를 1:4나 그보다 더 심한 차이로 만들면 변이효소를 찾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무렵 심지어 전형적인 심한 변이를 가진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엽산대사 효소의 하나 MTHFR로 약칭) 결핍증은 많아야 정상의 5% 밖에 안 되는데도 이 검사를 하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주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한 일이 분석을 어렵게 한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다. MTHFR 분석에 필요한 방사성 기질을 정제한 후에 분석에 사용하면 신뢰도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우리가 이 비결을 밝히고 나서 그 후 적어도 몇년동안은 전 세계의 MTHFR의 선진 검사들 우리가 맡아서 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본래의 문제해결은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알 수 있었다.

효소의 유전변이를 찾는 결정적 돌파구는 열처리에 의한 효소결핍감도를 높이는 둘째 조건을 해결하는데서 비로소 찾아졌다. 지난 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여기에 이르는 데도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 한 과제에 집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배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소개한 세환자의 MTHFR의 역가가 정상치와 구별되지 않았으나 효소를 46도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정상한계를 분명히 벗어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변이효소는 정상효소에 비해 열처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열처리 후에는 정상효소와의 간격이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태껏 알려진 MTHFR의 유전변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유전변이를 이들 세환자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이 찾아진 이 감온(thermolabile) 변이효소를 TMTHFR라고 명명하고 이 일을 1987년 미 유전학회지에 출판하였는데 드디어 이때부터 유전분야에 우리 일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77 ~ 1997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본 20년
강 수 상 (53)

시스테인이 homocystinuria 환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에도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간단하다면 간단한 일이 희소한 유전병과 일반질환 사이에 처음으로 길을 터놓는 시발점이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알게 모르게 그동안 적어도 4-5회는 호모시스테인을 주치의가 재어보았을 정도로 보편화된 시초가 이렇게 탄생 된 것이다. 그러나 1977년에 발견한 이 사실을 학계는 순탄하게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몇몇 곳에서 출판을 거절당하고 2년 후인 1979년에 드디어 Pediatric Research가 이 논문을 받아주어 출판이 되었다. 아무리 창의적인 일을 하더라도 기성체제에 수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때 배웠고 그 후 내 이름이 이 분야에 널리 알려진 후에도 양상만 달라졌지 학자간의 경쟁심은 여간 예민한 것이 아니었다.

해묵은 수수께끼에 도전 단백질결합 호모시스테인의 발견은 20만명에 한사람 꼴로 생기는 homocystinuria라는 희소질환을 일반질환에 접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되었다. 60년대에 Mass General의 병리학자 Mc Cully가 homocystinuria로 죽은 아이의 혈관 조직조건이 동맥경화와 유사하다는데 근거하여 성인에서 보는 동맥경화증도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으로 발생한다는 학설을 주장하고 동물실험으로 입증하려 했으나 검검에 문제가 많아 그 후 이 학설은 학자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단백질결합 호모시스테인의 발견으로 총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인에서 측정이 된다면 코레스테롤과 혈관질환의 관계를 연구한 것 같이 동맥경화증 환자와 정상인의 호모시스테인을 측정해 비교해 본다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올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의 경색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angiogram을 받는 환자들의 호모시스테인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 관상동맥을 가진 200명의 대조군의 수를 채우는 일이다. 대조군은 심장전문의가 관상동맥증을 의심하고 angiogram을 한 결과 정상 관상동맥으로 판명된 경우와 다른 심장질환으로 angiogram을 해서 정상 관상동맥이라는 판정이 내린 환자에서 얻어지는 것이니 쉽게 찾아질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1978년에 시작하여 1986년에야 이 일의 끝이 났다. 다섯 페이지로 연구결과를 정리한 이 논문을 JCI에 내는데도 곡절은 많았다. 세 사람의 심사원 가운데 한사람의 반대로 출판이 거부되었다. 다행히 함소 편지를 보낸 것이 수락됨으로서 출판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제소가 통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논문은 관상동맥증과 호모시스테인 관계를 처음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 뒤 이제까지 나온 9,000 편이 넘는 이 분야의 논문가운데 이와 유사한 수백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정상인의

정상 호모시스테인을 가진 부류로 나누어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고 만약 호모시스테인이 코레스테롤 혈당 혈압 체중과 같은 다른 위험요소와 협동관계로 관상동맥증이 생겼다면 이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얻은 통계분석은 코레스테롤에서 얻는 결과값이 환자군과 대조군의 분포의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협동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해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이때부터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사실 코레스테롤의 경우도 이런 점에서 미진한 점이 많다. 총 코레스테롤 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니 LDL(bad)과 HDL(good)의 코레스테롤 분류를 하고 거기에 부가하여 중성지방까지 동원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코레스테롤 저하약 Lipitor의 복용으로 관상동맥증 발생이 줄어든다는 통계는 코레스테롤 학설에 큰 힘을 실어 줄지는 몰라도 해답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량의 Lipitor로 LDL 코레스테롤을 정상치 이하로 줄이면 더 현저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최근의 관찰을 Lipitor의 항염작용(抗炎症作用) 탓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도가 어긋난 공색한 설명이다. 부가하여 비판하자면 몇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코레스테롤의 정상치를 200까지 줄인데도 그 근거가 확고한지 집고 넘어 가야할 일임에 틀림없다.

얻은 것이 찾는 것이 아니기에 얻은 행운 8년을 보낸 이 프로젝트는 다행히도 놀라운 새 과제에 착안을 하게 해주었다. 이 연구에서 환자의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의 2배가 넘는 경우는 드물고 3배 이상은 보지 못했는데 예외적으로 세 사람에서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의 7-8배가 넘는 것을 관찰한 것이 그 시작이다. 중증인 homocystinuria 환자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임상증상으로 보아 homocystinuria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의 함성과 분해에 관계되는 효소들의 결핍 여부를 이 환자들에서 찾기 시작했으나 일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무런 단서를 얻어내지를 못했다. 그 대신 뜻밖에도 이 실패가 새 분야에 눈을 뜨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이들 환자의 임상기록에서 하나같이 B 비타민인 엽산과 B12의 수치가 낮고 적혈구는 정상이상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되었다. 호모시스테인 대사가 엽산과 B12의 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 유전적인 결함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타민의 결핍 그 자체와 직접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타민 분석실의 혈청들을 분석을 해보니 결핍상태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상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값이 낮은 경우에도 호모시스테인이 정상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게되었다. 이 연구에서 엽산결핍이 B12 결핍을 동반한 경우 엽산결핍 단독의 경우보다 더 심한 호모시스

빌리그래햄 목사님은 87세의 고령으로 수십만 군중을 모아놓고 뉴욕에서 대 전도회를 마치고였다.

Larry King Show 초대 인터뷰에서 파킨슨병 말기전립선암, 최근 넘어져서 골반골절 등 많은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세상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대전도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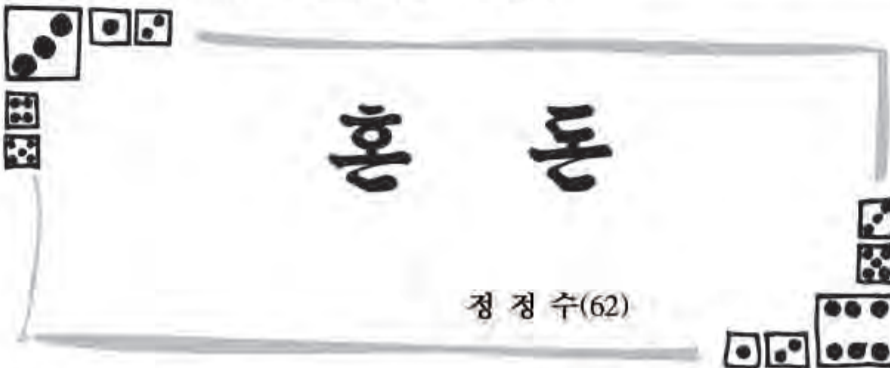
그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북음전파한 사진들을 종합 방송하면서 북한 김일성 수령을 방문해서 북한에서 한 전도대회도 보여주었다.

자기는 천국으로 가는 확실때문에 오늘 죽어도 즐겁게 죽음을 맞아 천국에서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하였고, 9.11사태의 모든 테러범들도 자기는 다 용서했다고 하고 쓰나미에 어린이들까지 몇십만명이 참사를 한 것은 자기도 하느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 재림심판을 확신있게 대답했다.

같은 날 신문전면에는 Mission Deep Impact 라는 기사가 실렸다. 4.5Billion year 전에 태양계의 Disk가 원시위성사태에서 붕괴 지구, 화성 등등 태양계의 위성들로 변할때 지금 Pluto(명왕성) 근방 먼 곳에서는 아직도 그 상태의 Debris들이 많이 남아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 큰것들은 혜성으로 태양근처로 주기적으로 날아오다가 태양 가까이 오면 꼬리 먼지 수증기 얼음덩어

리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밤하늘에 아름다운 혜성으로 나타난다.

여러 이름중 이번 Temple I 이라는 혜성이 66,880 mph로 태양으로 질주해 오고 지구에서 쏜 Mission Deep Impact Rocket는 48,990 mph로 날아가서 310 마일 근방에 접근했을때 Mother Space



Ship 에서 Deep Impact Rocket를 쏘아 Temple I 혜성 표면에 상처를 내는것을 사진 찍고 정보분석해서 Disk 상태의 4.5 Billion 전의 태양계 Debris 등의 성분을 알아낸다는 것이다. 우리 지구가 태양주변을 공전할때 수만개의 크고 작은 이런 Disk 잔재 Debris들과 아슬아슬한 충돌기회를 가지는데 현재 지구상에 지질학자들이 확인한 크고 작은 Meteorites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60million years 전에 일어난 충돌은 공룡을 멸망시키고 primates에 기회를

주어 인류가 오늘날 주인이 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 자연세포에서 핵을 빼면 세포물질에 DNA strip 하나하나를 조립해 넣어 인공세포를 만들어 여러제약 실험, 새 품종개량 창조에 쓰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우리나라의 자랑 황우석 교수는 여자 난자에서 핵을 빼내고 거기에 척추마비환자 등 각종 병 환자의 체세포핵을 집어넣어 Stem cell을 만들어 배양하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가까운 장래에 많은 난치병을 이득수 배양 Stem cell을 주입해서 상처손실된 조직을 재생재활성 시키겠다고 한다.

우리 인간은 98%를 침관자 유전자와 공유하고 있고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인지라 심장이 맞는 순간 3분만 뇌세포에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부터

죽고 부패하기 시작해서 사지도 몇시간내에 서서히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Radical anxiety, ultimate anxiety, absolute anxiety) 즉 죽음에 대해 인류역사상 미이라, 피라미드, 명태왕 13능, 진시황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죽음, 사후의 부활 천국, 극락, Muslim 교포들의 폭탄 순교로 천당 직행, 많은 인류 역사상 종교전쟁, 종교마찰 등도 빚어지게 된다.

불가에서는 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어 있는것이니 생과 死는 불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生死不二라고 달관을 가르치고 집념을 버리는 멸집을 수행해서 죽음을 入寂으로 생각하고 훈련 단련 연마하라고 가르친다.

이제 내 나이도 고회를 앞두고 친숙한 간호원 이름, 매일 쓰는 약이름도 가끔 금방 떠오르지 않아 곤혹을 치르는 때가 있으니 요즈음처럼 살벌한 의료상해고소 환경 속에서 다행이도 여태껏 한번도 안 당하는 요행을 거물삼아 더 큰 실수 저지르기 전에 조용히 마무리 짓고 이제 위에서 많이 봐줘야 10년 정도 사람구실하면서 살수 있겠으니 뒤로 물러서 여유로히 읽고 싶은 책 읽고, 하고 싶은 공부나 하면서 혼돈에 빠지지 말고 죽을때까지 제 정신 지키면서 入寂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이번은 또 생겼다. 감온성 효소변이가 호모시스테인이 정상 7-10배 높은 환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상동맥증 환자 30명을 조사했다니 27명에서 감온성 효소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밀기 어려운 사실을 서둘러 예비보고로 Metabolism 에 보냈더니 몇 달 후에 출판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연구생활을 하면서 이때 만큼 흥분을 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뒤따라 수백명의 혈액을 검사해서 환자와 정상인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인에서도 7%라는 적지 않은 감온성 효소가 관찰되었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감온성 효소가 열성유전을 하는 동질접합체(homozygote) 즉 사람이 가진 두 개의 유전자에 다 변이가 생기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제 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phenylketonuria(PKU)와 cystic fibrosis가 1500-2000명에 하나로 제일 흔하고 Rb인자 음성환자가 백인에서 5%가 된다. 그런데 MTHFR의 감온성 효소 빈도가 종족에 따라서는 최고 20%까지 가는 것을 보면 질병유발에 관여하는 열성유전 가운데서 가장 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뜻밖의 일이다. 이런 인연으로 나는 TMTHFR라는 변호관을 만들어 지금껏 내 차에 달고 슬라이드 다니고 있다. 1996년 애란에서 있던 제 1회 국제 호모시스테인 학회 특별강연에서 변호관을 보였을 때 받은 갈채는 지금까지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다.

1988년에 발견한 감온성 변이효소 TMTHFR가 경증 호모시스테인증의 원인인 것을 알게되면서 이 효소의 DNA 클론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McGill 대학의 Rosenblatt와 Rozen이 우리와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합의하고 우리가 효소 분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분리한 효소가 우리가 찾고 있는 효소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효소의 재분리가 필요하게되었다. 때로는 같은 작용을 하는 효소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데 기인하는 불운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McGill에서 클론에 성공하고 유전변이를 DNA에서 확인하게되었다. 모든 것이 DNA로 확인되어야하는 이 시대에 TMTHFR의 DNA 확인은 호모시스테인이 학계에 전파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일은

감온성 효소가 McGill이 찾은 변이가 전부 아니다. 이 일은 언젠가 재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임상화학계가 유전변이 보다는 호모시스테인의 측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시키려는 한 이 문제에의 관심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급속도로 변하는 호모시스테인 분야

이 무렵부터 호모시스테인의 연구가 심장학 신경학 혈액학 병리학 영양학 뒤따라 신장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9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 성인의 호모시스테인을 측정하고 15년 동안 학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는데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데는 오래전에 있는 병리학자 Malinow의 공헌이 크다. 80년대 후반에 그가 호모시스테인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공동으로 논문도 발표하는 사이가 되었다. 1994년에 그가 Lofland Conference를 주관하면서 그 해의 주제를 호모시스테인으로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병리학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내과학 회지가 하고있는 Frontiers of Medicine에서 호모시스테인을 과제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있는 학자들 한 자리에 앉게 한 것에도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뒤이어 Federation Meeting에서 미주영양학회 주관의 호모시스테인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이듬해 국제 호모시스테인 학회가 애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 분야의 급격한 발전을 보게되었다. 이를 계기로 임상의학에서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호모시스테인 측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호모시스테인의 치료 목적으로 비타민 투여가 전에 없이 활발해졌다. Abbott가 면역분석에 의한 대량의 샘플을 간단하게 측정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연구실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던 일이 병원 임상검사실이 맡게 되었을 뿐 아니라 Abbott의 분석기는 날개가 돋친 듯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햇빛이 눈부시면 그림자도 짙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듯이 불을 붙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불은 불길을 잡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1986년에 발표한 호모시스테인과 관상동맥증의 관계가 그 후 수백 편의 논문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나 우리 자신은 그 일만으로 충분한 검증이 되었

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말이 이미 한바 있다. 다행하게도 그 뒤 감온성 효소가 발견되면서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으나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감온성 효소가 비타민 감소에 의한 호모시스테인증 발생의 감도를 높이는 것인 사실이나 비타민과 관계없이 감온성 효소라는 유전변이 만으로 호모시스테인증을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경도의 호모시스테인증 만으로 관상동맥증과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이 무렵 Atherosclerosis에 "Viewpoint"라는 초청논설에 이러한 생각 즉 오랜 시간 지속적인 호모시스테인증을 일으키려면 유전적 요소와 비유전적인 환경 요소가 필요하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 호모시스테인증과 감온성 효소가 각개의 역할을 하나 공존할 때 관상동맥증의 위험요소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발표하였고 그 무렵 NIH의 호모시스테인 RFA(특별한 과제를 선택해서 연구비 지급을 설정하는 것으로 통상 연구비 지급에 비해 특별한 것임)에 이 내용을 연구계획으로 신청하였으나 학계는 호모시스테인의 혈중농도 측정만으로 만족하고 그 밖의 문제에 비중을 두려는 생각이 적었다. 한해에 1,0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는 거대분야로 자라나면서 "雨後竹筍"같이 활거하는 호모시스테인 학계의 대가가 주름잡으면서 원래 밝아온 궤도와는 관계없이 호모시스테인은 코레스테롤의 축소판 같이 자리를 굳혀갔다. 여태껏 이 분야에 공헌한 실적과는 관계없이 힘을 쓰는 인물들로 RFA의 위원회가 결성되고 이 분야를 키워온 우리의 방향과는 다르게 학계가 움직여 가는 것을 보며 정치력의 착잡함을 절감하였다.

호모시스테인 학계는 각계에서 참여한 통합 분야라는 점에서 그 뿌리가 깊지 않고 구성이 복잡한 것이 이 분야를 키워 가는데 약점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코레스테롤이나 호모시스테인이나 그 원천은 중증 대사장애를 가진 유전질환이다. 호모시스테인증의 경우 그 혈중 농도는 정상 2배가 되며 코레스테롤의 경우 정상 200mg% 이하라면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는 600-1,200 mg %이다. 이렇게 높은 혈중농도에도 불구하고 혈관에 장애가 생기려면 때로는 10-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중간형인 300-400mg%의 코레스테롤이 50년 이상 계속 있어도 50%이상 관상동맥

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정상의 5배가 넘는 중간형 호모시스테인증에서 50세가 되기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런 점에서 경증 호모시스테인이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한 혈관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속적인 호모시스테인증이 환경요건만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한 두 번 측정된 값으로 코레스테롤이나 호모시스테인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년의 경험이 남긴 숙제

20만에 하나 정도 보게되는 희소질환을 성인 혈관질환에 연결시켜보려는 본래의 의도가 깊고 외로운 시련을 넘어서 드디어 빛을 보게된 흥분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언젠가는 학계가 이를 받아들일 날이 있으리라 믿었지만 내가 시작을 할 때 20편 미만의 논문이 불과 20년 사이에 9,000편이 넘는 큰 분야로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관질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기쁨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일단 정화가 되고 난 후에는 대세를 따라 올라가는 이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경이다. 희망 같아서는 위험요소로서 보다는 동맥경화의 유인물질로 호모시스테인이 설명되어야 할 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이런 점에서 안고있는 약점도 충분히 검토하고 성인 일반질환에서 유전변이가 주는 역할을 해명하고 응용 하였으면 한다.

이 일에서 발견한 감온성 효소 TMTHFR는 열성유전으로 동질접합체 이면서도 Rb 인자보다 더 흔한 빈도를 가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족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종족에나 적어도 5%이상은 이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호모시스테인증 유발의 감도를 높이는 작용 외에 다른 역할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이 같은 동질접합체가 다른 효소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유독 염산대사의 효소인 MTHFR에서만 이렇게 흔한 변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를 남겨주고 있는 것 같다.

여성암

암은 미국에서 사망을 제2의 병으로 써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여성에게 흔한 여러 종류의 암들은 조기 예방과 조기발견이 치료와 회복에 크게 차이를 가져오므로 더욱더 의연할 수 없는 처지다.

여성에게 오는 암의 종류와 발생빈도는 나이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미국 여성에게는 유방암이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이 대장, 직장암, 그리고 폐암, 자궁암 순서로 발생 빈도가 줄어들어 있다. 그러나 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조기발견이 불가능한 폐암이 단연 첫째로 꼽히고, 두번째가 유방암이라고 한다.

미국 암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1994년에 폐암으로 5만9천명, 유방암으로 4만6천명이 사망했다고 하며 1955년에는 18만2천명의 새 유방암 환자가 생긴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암 발생빈도를 서울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 문의해 보았더니, 그곳은 아직도 자궁암이 가장 흔한 암이고, 둘째가 위암으로써, 여기서 흔한 유방암과 폐암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1960년대에는 자궁암이 많았지만, 그 동안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암검사(PAP Test)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하게 되어 발병율이 60% 정도 감소함으로써, 이제는 흔하지 않게 된 반면, 폐암은 흡연으로 인해 이곳 여성에게는 흔한 암으로 되어 있다.

이곳 교포여성들은 아직도 1세가 대부분이니, 암발생 통계는 한국사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며, 2세대들은 역시 이곳 미국의 암발생 추세에 가까워 가고 있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과 관계있는 몇가지의 암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유방암

미국에서 출생한 여성 8명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가장 흔한 암으로써, 사망자는 폐암 다음으로 많다. 다행히도 한국, 일본 등 동양여성의 발병율은 미국, 유럽등 백인 여성에 비해서 사분의일 정도라고 한다.

유방암 75%는 유전적이거나, 특별한 요건없이 발생하므로, 정기검진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유방암 사망률이 1993년에 처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방사선 Mammogram의 혜택으로 생각되고 있다.

유방암의 발병률은 가족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2-3배가 높으며, 2년성 쌍둥이는 2배, 일난성 쌍둥이의 경우는 6배나 높다고 한다. 또 월경을 일찍 시작했거나, 폐경이 늦게왔거나 했을 때는 걸리는 확률이 더 높으며 출산을 한 적이 없거나 30세 이후에 첫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비만증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 등에서 발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0세 이후부터 발병율이 증가하며, 50세 이후, 노년으로 가면서,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임약은 유방암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 호르몬 복용자에게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없다. 흔히 여성 호르몬 투여가 유방암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완전한 연구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유방암의 진단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의 손으로 감지해 보는 자가진단(Self Breast

Examination) 둘째, 산부인과나 가정주치의 정기진찰(Clinical Examination) 그리고, 세번째로 방사선 Mammogram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미국 암협회의 추천에 의하면, 첫 Mammogram은 40세가 되기까지 한번 정도 찍기를 권하며, 40대 부터는 1-2년에 한번, 50대에 가서는 매년 한번씩을 권하고 있다. 유방암의 생존률은 암이 국소에 국한되어 있는 초기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5년 이상 생존

률이었던 70년 초기에 자궁암 환자들이 많이 보였으나, 20년이 지난 최근 수년 동안에는 암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대부분 완치가 되어 버리므로 진짜 자궁경부암 환자는 큰 메디칼 센터를 빼고는 개업의에서는 보기 드문 편이다.

그러나 수년동안 암검사를 받지 않는 여성에게는 위험한 상태에까지 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함으로써 완치가

는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다. 음식과 많은 관계가 있는것 같으며, A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율이 높다. 대장, 직장암이 적은 곳에서는 위암이 많고 또 위암이 많은 곳에서는 대장, 직장암이 드물다는 얘기가 된다.

또 다른 조사보고에 의하면,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의 경우, 그 2세대에게는 위암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장 직장암은 일본에서는 드물었는데 미국 본토로 이주한 후에는 많아졌다는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대장, 직장암이 많은 이유는 생활 및 환경의 차이로 추정되고 있다. 즉 섬유질이 적은 음식,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운동을 하지않고 주로 앉아서 지내는 생활양식, 그리고 비만증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중 1%에서는 대장 직장암에 유전자가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발병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것은 조기진단과 또 Polyp과 같은 암 직전의 조직을 대장경을 써서 제거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약 10년전 Walter Reed 미육군병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정기 대장경 검사에서 발견된 Polyp을 제거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며, 필자도 위내시경, 직장경 정기 검사를 받고 있다.

대장, 직장암의 조직이 조기 발견되어 국소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92%로써 치유율이 좋은 편이다. 진단방법으로는 정기검진때 손가락으로 직접 진찰하는 항문검사법(Digital Rectal Examination) 등이 있는데, 대장, 직장암의 65% 정도가 손으로 진찰할 수 있는 항문 가까운 곳에 있거나, 직장경으로 추적이 가능한 곳에 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50세 이후부터는 3-5년 마다 한번씩 내시경, 직장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위암이 많은 한국에서는 위내시경에 의한 위암검사를 1-2년마다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에게 흔한 여러가지 암들을 살펴볼때, 선명한 대답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PAP Test, Mammography 검사는 여성암 조기검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암이 숨어있는 시기에 발견해 내므로써, 자궁경부암은 거의 100% 완치되거나와 유방암도 조기발견시에는 극히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그외 위암, 대장암, 직장암 등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능하므로, PAP Test, Mammogram, 위내시경 검사 등과 더불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암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말기암 치료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암의 80% 가량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기검진,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기회는 아깝게 놓치고, 또 흡연, 과음 등으로 예방의 기회도 놓쳐서 결국 암환자로 등록되는 때는 사형선고와 비슷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암의 종류에 따라 병의 예후가 좋은 암도 여러가지가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암의 완치는 어려운 상태로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놓친 대가는 크며 비정하기조차 한 것이다.

치료후, 병예후는 앞으로 5년간 생존할 확률이 몇 %인지의 숫자로써 이야기 하게 되는데, 5년 이상 생존할 경우는 병 예후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생각되고 있다.

병 예후는 암이 진전된 시기와 치료방법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진단과 치료방법이 매우 신중하게 다루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병원마다 종양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암을 <다음면에 계속>

여성건강양식



조동준(64)

할 확률이 93%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암이 발생후 다른 장기로 전이된 후기에 발견되었다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18%로 극격히 떨어지므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Mammogram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50-70%나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17-20%의 유방암은 갱년기 이전에 발생하고, 환자의 20%는 가족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폐암 (Lung Cncer)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하여, 여성이 한결 자유로워지고, 봉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서 여성흡연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내 여성 흡연자 수를 2천2백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폐암발병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여성폐암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같이 흡연이 폐암의 주원인으로써, 여성폐암 사망의 87%가 흡연자로 간주되고 있다.

백인 여성의 경우, 1986년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유방암을 처음으로 능가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남성을 불문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중 폐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암협회는 1994년도 여성 폐암 사망자를 5만9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폐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 않으며, 기침이나 각혈을 할때는 이미 많이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율이 높아지게 된다. 흉부 X-ray는 폐암의 조기 진단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연이 바로 폐암예방책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며, 흡연은 또 60세 이후,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의 원인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3) 자궁암

자궁암에는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과 자궁내막암(Endometrial Cancer)의 두종류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은, 자궁경부암으로써, 전체 자궁암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갱년기 이전에 주로 많이 걸리고, 자궁내막암은 10%에 해당하며, 갱년기 이후 노년 여성에게 발병율이 높다. (미국은 자궁내막암이 60%, 자궁경부암이 40% 비율이다)

자궁경부암은 미국에서는 흑인여성의 발생율이 백인여성보다 2배나 많은데, 이것은 흑인여성이 일반적으로 정기검진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발견이 잘되지 않기 때문인것 같다. 미국에서는 40년전인 1960년대에 비하여 1990년에는 자궁경부암 발생율이 60%나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자궁암 검사(PAP Test)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 초기암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자궁경부암의 발병율을 감소시킨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선진 여러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국에서는 PAP Test 만큼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것 같다.

필자의 경험으로 부인과 암전문 수

필수 있는 암이 바로 이 자궁경부암으로 암예방과 치료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다.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은, 성생활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성생활을 일찍 시작한 여성,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여성에게서 발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흡연 또한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성생활과 관계되는 성병의 일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수녀들에게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암검사가 필요없다고 하겠다. 또 콘돔이 성병예방에 도움이 되듯이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할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권장한다. 검사를 잘 받지 않는 여성의 경우, 너무 늦게 발견되면 위험할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PAP Test는 질 내에 떨어져 있는 자궁경부 세포의 일부를 수집한 후 검사실로 보내어 암세포의 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진단에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집하는 사람과 그 방법에 따라서, 또 검사판정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10-30%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은 수년내지 십여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는 것인데, 조기진단만 잘 되었으면 완치율은 거의 100%에 가깝게 된다.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다면, 미국에서는 자궁내막암이 60%, 자궁경부암이 40%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한국에서는 자궁경부암이 단연 많다. 또 흑인보다는 백인에게 더 흔한 병이고, 갱년기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초경을 일찍 시작하고 폐경이 늦게 온 사람, 출산을 전혀 하지않은 사람, 비만증인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등에게 발병율이 높은 편이다. 또 자궁내막암 환자중 70%가 콜레스테롤이 250mg/dl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경후 출혈이 있을때는 꼭 진찰을 하여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정기검진과 함께 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궁내막암도 역시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병의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이다.

4) 위암, 대장-직장암

대장, 직장암은 미국 여성에게는 유방암 다음으로 흔한 암으로써, 미국 암협회는 1994년도에 7만4천명의 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암이 극히 흔한 암이며, 대장, 직장암은 그리 흔하지 않다. (한국여성에게는 가장 많은 것은 자궁경부암이고, 그 다음이 위암으로 꼽힌다.)

위암은 초기증세가 없으며, 발견시

연애타령 -

역시 코끼리는 코가 커야 코끼리이다



이원택(71)

자고로 수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온갖 머리를 짜내었으나, 다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관찰이었을 뿐이다. 과연 연애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감정적인가 행동적인가. 화학적인가 심리적인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같은 질문에 과연 대답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연애의 말뜻은 사람에 연연한다는 말인데, 이때 사람에 대한 정의는 매우 좁은 것으로 남녀간에 일심동체를 추구하는 것 이라고 본다. 또한 연연한다는 말은 항상 그리워하며 아쉬워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인간의 불완전에서 비롯된 완전을 향한 몸부림인 것이다. 우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남북통일에 이어 여남 통일을 갈망하는 유전자를 타고 났다고 본다.

드디어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여 남녀 통일이 이루어지고, 육체적으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 졌는데도 모든 기혼남, 기혼녀들이 또 다른 연애의 대상을 찾아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서로 궁합이 안맞아서, 역시 불완전한 결합이었기 때문에 더 완전한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신흠초에는 그렇게 찰떡궁합이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루떡이 되는 것은 물리적인 반응인가 심리적인 반응인가(?) 결국은 이 세상에 완

전 무구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굳이 연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아는 한 정신과 의사는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정의를 내린바 있는데 그분 말 -

"The problem is! The girls you want to look at don't want to look at you, and the girls you don't want to look at want to look at you!" 란다.

즉 서로 조금씩 좋아하다가도, 한쪽에서 갑자기 열을 올리면, 상대방에서는 어쩔지 손해드는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위축이 되는 모양이다. 대저 남자들이 화류계 여성한테 빠지는 것도 그네들은, 내가 아니라도 나를 좋아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던지, 손가락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바람에, 남자들의 정복욕을 더 북돋아 주는게 아닌가 한다. 화류계 여성들의 금과옥조로 "줄뚱뚱 해아지 한번 주고 나면 괴이다!" 라는 말도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어차피, 사람마다 나름대로 연애란, 손을 잡는 것, 키스하는 것, 섹스하는 것, 잠 못자는 것, 달콤한 것, 씁쓸한 것, 돈이 드는 것, 아름답고 추한 것, 미치고 환장하는 것, 씁다남은 배추 품명이 같은 것, 아슬 아슬하고 쾌가담신하는 것이다.

즉 연애란, 그린 사람도 모르는 한쪽의 추상화요, 60억 인구마다 다른 곳을 만지는 거대한 코끼리인 것이다.

어느날 묘령의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던중, 한참 무드가 올랐을때 아가씨가 "연애가 뭐데? -" 하길래, "응, 그건 거대한 코끼리- -" 라고 했다가, "흥!!" (이런 얼짜가 어디있어) 하고 뛰 나가 버리고 나서야 내 진작에 왜 연애란, "함께 여관에 가는거야!" 라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했던 말인가 하고 후회막급이었다.

심적 충격에 의한 실어증

정유석(64)

마야 앤절루(1928~)는 현존하는 미국 작가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편에 속한다. 그녀는 시인으로서도 유명하지만 6편에 의한 회고록을 통해 흑인이면서도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적 노력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후진 아칸소 주에서 태어나 극심한 가난과 무지, 궁핍 속에서 자라났다. 8세에 강간을 당했으며 틴에이지 때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춘부 생활을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당시 그녀는 웨이트리스, 댄서, 가수는 물론 매춘부로서까지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그녀는 16세에 미혼모가 되었다.

그녀의 저서는 내셔널 북 어워드나 풀리처 상에 여러 번 올랐다. 그리고 적극적인 민권운동, 아프리카에서 벌인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해 무려 30개 이상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가 유명해 진 것은 1993년, 클린턴씨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On the Plus of Morning"이란 축시를 낭독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케네디 대통령 취임시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축시를 낭독한 후 두 번째 누란 영예였다. 그것도 흑인의 신분으로.)

8살에 불과했던 소녀에게 강간한 남자는 바로 친어머니의 남자 친구였다. 사건 직후, 그는 체포되어 법정에서 징

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감옥에 가기 전에 린치를 당했다.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아 사망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마야 앤절루는 몇 년간 말을 잃었다. 완전히 병어리가 되고 말았다. 자신이 입을 열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색칠한 새'를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저자 코진스키는 6살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 폴란드 농촌을 떠돌다가 한 포악한 농부에 의해 변기 속에 집어 던져진다. 그 충격으로 인해 그는 병어리가 된다.

그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어도 부모를 찾지 못하고 고아원을 전전한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무렵, 시골에 아이를 맡겼던 부모는 천신만고 끝에 아들과 재회한다.

전쟁을 통해 겪은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모든 감정이 무디어져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들을 달래 보려고 부모는 한 스키장에 휴양을 보낸다. 거기서 코진스키 소년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몇 주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서 언어 기능을 회복한다.

한국 전쟁 발생 후, 부산 피난시절 시인 서정주씨가 한동안 정신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말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는 당시 무수한 환청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주위에는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구상, 오상순, 유치환 같은 시인들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환청으로 인해 그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

뇌졸중에 걸리면 흔히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회복이 되려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인성 실어증은 회복이 빠른 게 특징이다. 세대는 달랐어도 이 세 작가가 경험했던 실어증은 정신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심인성 실어증"인 것이다.

잊혀진 반장투표

서량 (69)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루는 반장투표를 했다
나는 담임 선생님이 입장할 때 마다 반장이
"차려~엇!" "경례~엇!" 하며 호령하는 군대식 예절이 마음에 들었어
(질서는 격식에서 온다)
나도 저렇게 근 70명에 가까운 내 또래
조무라기를 향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함을 쳐 봤으면 했거든
전학 온지 얼마 안된 나는 친한 친구 하나 없었어
(외로움 때문에 늘 당신은 튼튼해 진다)
근데 반장 투표를 하는데 내가 물방에 오른거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나에게 전라도 애들이 '촌놈' 이라고 놀리던 시절, 그 전에
경상도에서는 서울대기' 라고 놀림 받던 때들이 시절
학교 변소 벽에 으레, 각각!!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뭐 했다는 질탕한 낙서가 있던 시절
(영원히 유아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나는 그 때 딱 한 명 뿐인 부반장 후보 광주 무순 약국집 딸이 물래 좋았거든
나와 개가 뭐 했다고 한 낙서가 눈에 아른거렸다
개표가 시작되고 심하게 불안했지
(당신의 불안증세는 은근한 쾌락이다)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에 부풀었어 육이오 사변 직후의 내 사랑, 내 운명...
그러나 나는 끝내 반장으로 뽑히지 못했다
그때 당선된 산부인과 의사 아들 잘 생긴 그놈 자식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니가
(당신의 야심은 소소한 낙서에서 잉태된다)

《전면에서 계속》 전공한 외과의사, 병리학 의사, 방사선 치료의사 및 종양학 전공의사 등인데 여기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요법 등 크게 세가지로 들 수 있는데, 암의 종류와 진전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둘, 또는 세 종류의 방법을 겸용하기도 한다. 치료효과 케이스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는 것이고 완치는 생각하기 어렵다.

위의 세가지 치료법 중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나지않고, 여체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서 입은 완전 진전되고 말기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암은 걸리지 않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크게 다르바는 없다고 하겠으나 현대의학의 한계가 아쉽게 느껴진다.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서 오는 반응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감정의 단계 (Emotional Stages)를 거친다.

첫째는 거부(Denial), 즉 자신이 이러한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않는 시기이고, 그 다음 둘째로 오는 것이 분노(Anger)인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과 대상에 대해 화를 내어 가족들에게 힘든 시기이다. 세번째로 타협(Bargaining), 즉 그동안 자신의 화내 행동과 대인관계에 대해 자승스러워 하며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넷째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손실감 등을 깨달으며, 의기소침 하게 된다. 다섯째는 용납(Acceptance)으로 결국 자기의 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달라서, 죽음에 대하여 발작적인 반응을 오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다섯 단계를 끝까지 거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을때 본인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감정적 차제가 있어야 하고, 가족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 및 개인의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

죽음이란 우리 모두가 언제가는 직면해야 하는 생명의 종말임에는 틀림없다. 사람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도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세에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반응과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가족이나 주위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부인과 암에서 많이 보이는 자궁경부암은 노독증이나 암부위로부터 생기는 막을 수 없는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줌주머니를 배에 매달고 다녀야 할 수도 있다. 또 부인과 암중 사망률이 가장 높고 치료가 힘든 것은 난소암인데, 이 병은 여러가지 약물치료법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아왔는데도 치료가 잘 되었을때 5년간 생존률이 23~35%이며 나쁜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10~15%를 넘지 못한다.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는 종말에 장폐쇄증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된다. 난소암 치료에 많이 쓰는 약물치료와 부작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약의 중독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머리가

빠지며 백혈구가 감소하여 면역성을 잃게되고 구토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약물이 암세포를 죽임과 동시에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즉 약물치료의 득과 실의 문제가 야기된다. 또 난소암으로 생긴 장폐쇄증 환자를 수술로써 4~6개월 정도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같이 암 말기에 있는 환자들을 다루는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임하여 최첨단 치료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삶의 질(Quality)과 품위를 가진 죽음(Death with Dignity)에 대비를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